

제60대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지

차수	긴급 회의
일시	17. 12. 15 18 : 30
장소	총학생회실

참석확인 (10/13)

간호	경경	공대	사범	사과	약학	예술	인문	의학	자연	동연	부총	총
○		○	○	○	○		○	○	○		○	○

□ 보고 안건

1. 12월 15일 교수협의회 농성/삭발식

– 총장 연임 비판 관련, 교수협의회 주요 의제

- 1) QS사태에 대한 책임
- 2) 대표자 회의의 인정
- 3) 광명병원 건립 중단
- 4) 법인 퇴출
- 5) 민주적인 총장 선출 요구

□ 논의 안건

1. 총장 연임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입장

–인문대학: 학우들의 의식 지형이 아직 형성되지 않음. 학우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중운위 차원에서 진행하여 공포하는 것이 공신력 있을 것. 대학본부, 삭발식과 농성에 이은 교수-총장 면담에 학생 전체 참가를 거부하고 대표자 참석을 요구. 학생을 주체로 보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 학내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교협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음. 그러나 교협을 지지하는 것과는 별개. 중운위의 단독적인 입장이 제시되어야 할 것. 의결 구조 자체가 학생의사 등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광명병원을 비롯하여 학내 비민주적인 상황에 대해 논해야 할 것. 그러나 현 총장 선출이 비민주적인 것과 직선제를 논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것.

–자연과학대학: 교수협의회 태도에 대한 논의는 필요. 그러나 교협이 지정한 바에 대한 타당성은 존재. 11일 총장 불신임투표, 12일 교협 성명 발표, 13일 연임 결정의 과정 속에 학내 주체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 QS평가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같이 하는 것에 동의. 학교 구성원의 한 주체인 교수를 무시하는 이사회가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가에 대해 부정적. 현 총장 임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민주적 절차로 새로 선출하는 것을 주장해야 함. 임기 중인 총장이나 임원진이 모두 사퇴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비민주적 절차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야 할 것.

–사회과학대학: 교수협의회가 보인 태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함에 동의. 비민주적 환경 속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을 위해 민주적 환경을 만들자는 것에 동의했으나 교수협의회 지지선언으로 해석된 것에 대해 오늘 보인 극단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동의. 학생들이 민주적인 환경 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여 발언했으나 학생의 입장표명을 지지선언으로 해석된 것. 학생들의 의견이나 구성원의 의견이 여러 측면에서 학교 공동체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수렴되기를 바람.

-의과대학: 이번 농성과 삭발식에 있어서 광명병원이 하나의 이유가 됨. 그러나 의대 학생들조차 이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는 상황. 무관심이 일차적인 문제임. 약 삼천 억이 드는 병원 건립비용에만도 대학이 책임져야 할 1600억원의 부채가 있음. 교육장소이기도 하지만 법인 소유의 병원이기도 한 광명병원에 대해 법인이 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입장. 건립이 성공적으로 된다고 해도 이후 연간 70억 원씩 20년간 부채를 상환해야 함. 이 때 적자상황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음. 서울 내 수도권 대학병원 중 교비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대학은 현재 교비에서 임상교수 인건비가 나감. 광명병원의 부채에 있어서 회계가 분리되어 학생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 모순.

-공과대학: 교협의 주장 중 학내 구성원이 체감하는 부분이 있음. 곧 우리가 체감할 문제에 대해서는 학내 구성원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당연. 또한 학교의 비민주적인 부분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소리를 내야 하는 것 역시 맞음. 정원이동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 그러나 현재 총장이 재임용된 상황 자체는 사실. 이 과정 내 학내구성원 의견 미반영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 총장 불신임 투표는 교협에서 진행한 것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가 진행한 것이 아님. 현안에 대해 일반 학우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음. 교협의 주장에 동의는 하되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학생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심각성을 알린 이후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함. 학생 입장을 표명하고 의결 절차의 수정 요구가 필요.

-간호대학: 대부분의 학우들에게 전반적인 사안이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음. 정보전달이 필수적.

□ 의결 안건

1. 총장 재임용 관련한 중앙운영위원회 성명서공포(10단위 참석 중 10단위 동의로 가결)

-성명서 주요 내용

1. 학내 민주주의 - 학생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던 다양한 사례에 대해 언급, 학생 의결권 강화 주장.

10단위 참석 중 10단위 동의로 가결

2. 학생 의결권이 없기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언급, 학생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

10단위 참석 중 9단위 동의로 가결

3. 실제로 반영되는 것이 진정한 소통임을 적시, 허울뿐인 소통에 대한 비판.

10단위 참석 중 10단위 동의로 가결

4. 비민주적인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비판.

10단위 참석 중 6단위 동의로 가결

□ 기타 안건

1. 정원이동 관련 학교 본부의 입장 표명에 대한 기획처의 답변

: 학내 여러 사안 동시다발적 발생,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다음 주 초 답변해도 되는지 문의.

: 이미 15일 금요일로 기한을 정해 입장 표명을 요구했던 부분. 이 내용을 첨부하여 성명서 작성.

2. 학우 의식기반 형성에 대한 논의

-공과대학: 점차 개인주의화 되는 대학 내, 새내기 배움터나 학생회 프로그램을 통해 현 학내 사안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학생회의 인식과 기초에 대해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개인의 것을 챙기려고 하는 문화. 바로 인식기저 형성은 어려울 것. 새터 때 신입생 대상으로 간담회도 있고 새터 학생회 프로그램 등이 있을 것으로 앎. 이 때 학생회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현황에 대한 교육 필요.